

第 22 回

全國民俗芸術競演大會

— 出 演 作 —

民 俗 : 鳳山탈춤

民 俗 : 소놀이굿

日時 : 1981. 10. 22 ~ 24

場所 : 仁川直轄市公設運動場

黃 海 道

民俗競演大會에 參加하면서

黃海道知事 鄭 奉 重



새時代, 새歷史 創造를 指向하는 歷史의 轉機
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금 民族精氣를 드높이고
민족문화의 얼을 전승하여 위대하고 영광된 福
祉國家 建設과 正義社會 具現을 爲한 時代的 使
命感和 國력의 신장을 말해주는 '88서울올림픽
유치의 영광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加一層에 前進이 있기를 祈祝합니다.

今般 仁川에서 舉行되는 第22回 全國 民俗競演大會에 失鄉 黃海道民
의 固有民俗으로서 아래 두가지 민속놀이를 가지고 出演하여 잊혀져가
는 鄉土藝術 暢達 繼承에 寄與코저 하오니 많은 參觀및 激勵 있으시 기
를 敬望하옵니다.

— 아 래 —

* 鳳山탈춤 競演

1981. 10. 23. 10 : 45~11 : 25 (40분간)

* 소놀이굿 競演

1981. 10. 23. 13 : 50~14 : 30 (40분간)

봉 산 탈 춤 (무형문화재 제 17호)

— 해 설 —



봉산탈춤보존회 회장 김선봉

봉산탈춤은 오래전부터 황해도 여러 고장에서 추어 오던 탈춤의 하나로서 「해서탈춤」의 대표격이 되는 탈춤이다.

봉산탈춤은 원래 봉산구읍 경수대에서 연희되었으나 1915년경 군청 기타 행정 기관이 사리원으로 옮기고 경의선도 개통하게 되자 이 놀이도 그후 사리원 경암산 아래에서 놀아왔다. 해방후 월남한 몇분의 연희자들에 의해 1958년 이래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봉산탈춤은 그 극본과 춤, 가면, 의상 및 반주음악 등에 있어 한국가면무극의 해서형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으며 역시 다른 가면무극과 마찬가지로 춤이 주가 되고 이에 몸짓과 동작과 재담과 노래가 따르는 형식이다. 중부지방의 양주 별산대 놀이에 비하면 그 춤은 뛰는 춤이 많아 활발하며 대륙 전래의 건무의 영향을 생각케 한다. 가면 역시 보다 사실적인 가면에 비하여 요철 굴곡이 심하여 비사실적인 수법으로 특이하다. 그 과장을 크게 7과장으로 나누어 제 1과장 사상좌춤, 제 2과장 팔목중춤, 제 3과장 사당춤, 제 4과장 노장춤(신장수 취발이춤 포함), 제 5과장 사자춤, 제 6과장 양반 말뚝이춤, 제 7과장 미알영감춤으로 이 놀이의 내용 역시 산도대감 계통극으로서 다른 가면극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 ① 벽시의 의식무(사상좌춤과 지노귀굿) ② 파계승에 대한 풍자 ③ 양반에 대한 모욕 ④ 1부대 처첩의 3각관계와 서민의 가정생활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파계승 몰락한 양반과 그 하인 무당 사당 거사와 기타 서민들의 등장을 통하여 무속과 불교신앙과 권선징악의 테두리 안에서 호색과 현실폭로의 익살과 웃음을 통하여 이상의 주제를 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놀이는 이북 지방의 큰 명절인 단오날 주로 연희되어 왔으며 상좌춤으로 시작하여 굿으로 끝나고 있으나 다른 가면극에 비하면 신앙적 내지 종교적 의의는 희박하고 민중의 오락적 요소가 훨씬 우세하다.

— 출 연 자 명 단 —

- | | | | |
|------------|------------|------------|------------|
| (1) 최 경 명 | (2) 오 명 옥 | (3) 김 선 봉 | (4) 양 소 운 |
| (5) 윤 옥 | (6) 김 기 수 | (7) 정 재 천 | (8) 장 용 일 |
| (9) 김 종 엽 | (10) 조 운 용 | (11) 최 창 주 | (12) 정 혁 조 |
| (13) 김 성 혜 | (14) 김 종 혜 | (15) 황 녕 도 | (16) 박 상 운 |
| (17) 장 준 식 | (18) 박 미 경 | (19) 김 호 석 | (20) 김 동 준 |

소 놀 이 곳 (처녀작)

— 해 설 —



소놀이곳기술보유자
우 옥 주

황해도에는 많은 곳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방의 곳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양하다. 특히, 만주 대락곳은 보통 일주일씩이나 걸리며 곳중에는 제일 큰 곳이다. 24거리로 짜여진 이 곳은 넷째거리인 제석거리를 할 때 동네 사람(한량)들이 멍석으로 소를 만들어 뒤집어 쓰고 마부를 앞세워 풍악을 울리면서 곳당으로 들어와 곳을 하고 있는 만신과 마부 사이에 갖은 재담을 주고 받고 한 뒤, 술상과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춤추며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한바탕 노는 것이다. 이러한 식은 큰 곳을 할 때는 동네사람들이 으레이 술과 음식을 얻어먹기 위하여 벌인 것이라 한다.

— 출 연 자 명 단 —

- | | | | |
|------------|------------|------------|------------|
| (1) 조 한 준 | (2) 조 순 옥 | (3) 정 순 옥 | (4) 고 명 목 |
| (5) 김 실 자 | (6) 김 정 순 | (7) 윤 도 령 | (8) 양 종 승 |
| (9) 정 기 호 | (10) 박 회 숙 | (11) 박 문 규 | (12) 이 순 종 |
| (13) 김 경 복 | (14) 송 선 원 | (15) 홍 필 순 | (16) 김 영 애 |
| (17) 김 무 자 | (18) 황 경 희 | (19) 마 경 애 | (20) 안 춘 자 |
| (21) 이 정 미 | (22) 김 미 숙 | (23) 남 성 우 | (24) 이 순 종 |
| (25) 김 애 영 | (26) 노 종 선 | (27) 노 혜 경 | (28) 최 부 안 |
| (29) 강 영 희 | (30) 김 영 선 | (31) 김 영 만 | (32) 신 회 정 |
| (33) 서 광 원 | (34) 이 인 영 | (35) 김 영 석 | (36) 박 병 택 |
| (37) 윤 준 석 | (38) 조 동 준 | (39) 강 인 숙 | (40) 이 은 주 |
| (41) 신 경 원 | (42) 이 옥 회 | (43) 임 춘 회 | (44) 정 기 양 |
| (45) 김 인 혜 | (46) 이 영 애 | (47) 윤 병 철 | (48) 박 춘 원 |
| (49) 한 임 수 | (50) 김 원 정 | (51) 최 영 희 | (52) 나 주 경 |
| (53) 권 흥 량 | (54) 김 윤 경 | (55) 김 향 진 | (56) 현 병 환 |
| (57) 이 혜 옥 | (58) 박 선 순 | (59) 남 년 호 | (60) 장 근 주 |
| (61) 강 경 희 | (62) 이 병 현 | (63) 이 대 훈 | (64) 김 소 영 |
| (65) 빈 미 연 | (66) 박 경 미 | (67) 이 인 철 | (68) 차 영 준 |
| (69) 김 지 선 | (70) 진 원 섭 | (71) 우 옥 주 | (72) 배 문 일 |
| (73) 지 관 용 | (74) 박 동 신 | | |